

원전

체코 원전, 견제구에 헛스윙하지 말자

유틸리티/건설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RA **윤동준**
02. 6454-4886
dongjun.yoon@meritz.co.kr

체코 반독점 사무소, 미국-프랑스 원전 이의제기를 기각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 프랑스 EDF와 미국 Westinghouse의 이의제기를 기각(1심 결정).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가 대부분 중단됐으며,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라는 설명. 이는 30일 체코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데 이은 결정. 보류 조치는 경쟁에서 탈락한 두 회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어 선제적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최종 결정과는 무관.

두 회사는 15일 내 항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종 결정 이전까지 CEZ-한국수력원자력 간 계약은 어려움. 다만 항소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60일 이내에 내려질 전망. 따라서 늦어도 2025년 1월까지의 해소될 것으로 보임. 2025년 3월 말까지로 예정된 본계약 지연 가능성 낮음

규제 당국, 체코 정부, 발주처, 한수원 모두 최종 계약에 낙관적

해당 이슈에 대해 각각의 주체들은 큰 우려를 표하지 않고 있음.

- 1)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보류 조치는 행정적인 조치이며 의사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진행되는 조치라고 설명. 과대 평가할 필요 없다고 언급.
- 2) 체코 CEZ(계약 당사자, 전력 유틸리티): 선정 과정에서 법률에 충실히 따랐다고 확신. 본계약이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봄. EDF와 Westinghouse는 입찰 조건(이의 제기 금지)을 알고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나서 입찰을 문제 삼기 시작했음.
- 3) 체코 산업부 장관: 국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다만 CEZ와 UOHS는 2020년부터 공급업체 선정 방식에 논의했으며, 모든 입찰 참가자들이 입찰 당시 조건을 수락한 바 있음.
- 4) 한국수력원자력: 예비 조치 명령은 표준 절차에 따른 예비 조치. 결정과 무관. 차질 없이 협상 계획.

첫 수주라 많을 수밖에 없는 잡음

체코 원전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주이며, 유럽에서의 첫 수출. 경쟁사들의 견제구에 가까운 조치로 보임. 이 과정에서 행정적인 잡음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계약 완료 이후 이러한 잡음은 일소될 전망. 여전히 체코 본계약 가능성은 매우 높게 봄. 2025년에도 UAE, 네덜란드 등 한국형 원전의 수출 소식을 기대.

표1 UOHS의 예비 조치에 대한 체코 현지 반응 정리			
주체	출처	원문	번역
체코 UOHS (반독점사무소)	공식 X	Předběžné opatření se vydává vždy, když je třeba zajistit účel správního řízení, kterým je vydání meritorního rozhodnutí. V přezkumu veřejných zakázek bývá předběžné opatření zcela standardně vydáváno v desítkách případů ročně. Současně tento čistě procesní krok není třeba nijak přeceňovat a zcela jistě z něj nelze odvozovat cokoli o výsledku řízení nebo jeho délce.	예비 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보안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항상 발행됩니다. 공공 조달 검토에서 예비 조치는 매년 수십 건의 사례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발행됩니다. 동시에 이 순수하게 절차적인 단계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으며, 확실히 이를 통해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어떤 것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체코 CEZ (계약 당사자, 전력 유틸리티)	홈페이지	Společnost EDU II bere na vědomí postup Úřadu ve správním řízení a uvědomuje si, že vzhledem ke komplexnosti posuzované věci může Úřad potřebovat více času než zákonem předpokládaných 60 dnů. V takových případech je obvyklé, že Úřad přistupuje k vydání předběžného opatření – jen v minulém roce tak ostatně učinil ve více než 120 případech.	EDU II 회사는 행정 절차에서의 관청의 진행 과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검토 중인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관청이 법률상 예상된 60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서, 관청이 예비 조치를 발행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 실제로 지난해에만 120건 이상의 사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Společnost EDU II je přesvědčena, že v rámci výběru preferovaného dodavatele postupovala od první chvíle v souladu s platnými zákony a první prováděcí smlouvou uzavřenou mezi Českou republikou (zastoupenou Ministerstvem průmyslu a obchodu), ČEZ, a. s., a EDU II. Právě zmíněná smlouva, která zajišťuje státu mimo jiné přístup ke kompletní dokumentaci, možnost vznášet připomínky, případně i odmítnout určitého dodavatele, je důvodem pro aplikaci bezpečnostní výjimky a tedy postup mimo zadávací řízení.	EDU II 회사는 선호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처음부터 현행법과 체코 공화국(산업통상부 대표), ČEZ, a.s., 그리고 EDU II 간에 체결된 첫 번째 이행 계약을 준수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언급한 계약은 국가에게 전체 문서에 대한 접근권, 의견 제시 가능성, 심지어 특정 공급업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며, 이는 보안 예외를 적용하고 따라서 입찰 절차 외의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V současnosti vede společnost EDU II jednání s preferovaným dodavatelem, kterým je korejská společnost KHNP, o podobě finální smlouvy. Ta má být podle platného harmonogramu připravena k podpisu do 31. 3. 2025. Lze očekávat, že do té doby bude ÚOHS schopen v řízení rozhodnout, tak aby podpis smlouvy s preferovaným dodavatelem nebyl opožděn.	현재 EDU II 회사는 선호 공급업체인 한국 기업 KHNP와 최종 계약의 형태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계약은 현재의 일정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서명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ÚOHS(체코 경쟁보호청)가 절차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선호 공급업체와의 계약 서명이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Řízení se vede na návrh neúspěšných uchazečů, kteří si byli podmínek tendru vědomi, přijali je a podali v souladu s nimi své nabídky. Teprve poté, co při výběru dodavatele neuspěli, rozhodli se napadnout celý tendr od počátku.	이 절차는 입찰 조건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수락하고 그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했던 실패한 입찰자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들은 공급업체 선정에서 실패한 후에야 비로소 전체 입찰을 처음부터 문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체코 산업부 장관	Echo24 (체코 현지언론)	„Investor, tedy společnost ČEZ, projednala s ÚOHS způsob výběru dodavatele již v roce 2020. Stát projednal způsob výběru dodavatele s Evropskou komisí v rámci notifikace veřejné podpory pro nový blok v Dukovanech. Všichni uchazeči podmínky tendru akceptovali,“ dodal ministr s tím, že ze strany ÚOHS se jedná o předběžné opatření, je tedy třeba počkat na finální rozhodnutí.	“이렇게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예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 프로젝트의 소유자도 아니고 절차의 참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입찰과 관련된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불체코 장관이 Echo24에 말했습니다.
		Polostátní energetická společnost ČEZ nyní s Korejci jedná o smlouvě, která by měla být podepsána do konce března 2025. První z nových reaktorů v Dukovanech by měl být hotový v roce 2036. Náklady při aktuálně preferované výstavbě dvou reaktorů jsou při současných cenách 400 miliard korun.	“투자자인 ČEZ 회사는 이미 2020년에 ÚOHS와 공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가는 두코바니의 새로운 원자로에 대한 공공 지원 통보의 일환으로 유럽 위원회와 공급업체 선정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입찰 참가자들이 입찰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라고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ÚOHS의 조치는 예비적인 것이므로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각 회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